

1주간 백신 22만5853명 접종...사망신고 7건 인과성 조사

전 국민 0.4%...4일 하루 6만7153명 추가 접종

요양병원 75%·요양시설 40%·1차대응요원 2%

이상반응 860건 늘어 1578건...1558건은 경증

“중증이상반응, 역학조사 진행해 인과성 평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일주일째인 4일 하루 전국에서 6만7000여명이 추가 접종하면서 누적 접종자가 22만 5853명이 됐다.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 신고된 사례는 860건 늘어난 1578건이며, 사망 신고는 5일 1건이 추가돼 누적 7건이 됐다.

백신 예방접종과 인과성에 대해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5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는 총 22만5853명이다.

신규 접종자는 6만7153명이며, 지난달 26일부터 이날 3일까지 접종자 중 4279명이 추가로 시스템에 등록됐다.

이날 0시까지 추진단이 접수한 이상반응은 1578건(2개 이상 나타나면 중복 신고 가능)으로 전날(718건)보다 860건이 추가 신고됐다.

이 가운데 신규 849건 포함 1558건은 두통, 발열, 메스꺼움, 구토 등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경미한 사례였다.

중증 이상반응인 사망 사례는 전날 0시 이후 4건이 추가로 보고돼 총 6건이었고, 이날 오후 2시 기준으로는 1건이 더 신고돼 총 7건으로 늘었다. 추가 사망자 1명은 요양병원 입원 환자인 60대 남성으로 기저질환이 있었다.

지난 2일 오후 2시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후 54시간이 경과한 4

일 오후 8시에 사망했다. 신고는 4시간이 지난 자정께 이뤄져 이날 오후 집계로 반영됐다.

의료기관에서 신고된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는 6건 늘어 누적 13건이 됐다.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는 아나필락시스, 아나필락시스 쇼크, 아나필락시스양으로 구분된다. 13건 중 12건은 아나필락시스양 반응, 1건은 아나필락시스 쇼크 의심사례였다.

아나필락시스양은 예방접종 후 2시간 이내 호흡곤란·두드러기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로 급성 면역 반응인 아나필락시스와는 다르다.

아나필락시스는 접종 후 면역 반응이 과도하게 일어나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경련 의심사례 1건도 새롭게 보고됐다. 해당 사례자는 40대 여성으로 기저질환을 보유한 요양병원 입원환자다.

지난 3일 오전 11시에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은 후 12시간이 지나 발열과 함께 경련이 나타나 종합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다.

현재 역학조사 등이 진행되고 있어 백신 예방접종과 인과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백신별로는 아스트라제네카 22만 1944명, 화이자 3909명이 각각 맞았다.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 모두 2회 접종이 필요하며 현재는 1차 접종이 진행 중이다.

만 65세 미만인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입원·입소자와 종사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다. 화이자 백신은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종사자가 접종 대상이다.

전체 접종 대상자(75만2949명) 기준 대비 30.0%, 1월 주민등록 인구(5182만5932명) 기준 전 국민의 0.43%가 1차 백신 예방접종을 마친 셈이다.

정부는 감염재생산지수(감염자 1명당 추가 감염자 수 평균) 2에도 확산을 억제할 수 있도록 인플루엔자(독감) 유행 시기인 11월까지 전 국민 70%를 접종한다는 목표다.

신규 백신 접종자 6만7153명의 지역별로는 서울 9355명, 부산 4365명, 대구 2688명, 인천 4900명, 광주 1161명, 대전 1181명, 울산 1250명, 세종 121명, 경기 1만9336명, 강원 1335명, 충북 2674명, 충남 3356명, 전북 1971명, 전남 2827명, 경북 4238명, 경남 5859명, 제주 536명 등이다.



누적 접종자는 서울 2만3015명, 부산 1만8684명, 대구 8994명, 인천 1만 4055명, 광주 9626명, 대전 5993명, 울산 4069명, 세종 440명, 경기 5만1996명, 강원 5170명, 충북 8885명, 충남 1만2742명, 전북 1만1762명, 전남 1만3450명, 경북 1만3339명, 경남 2만 1946명, 제주 1687명 등이다.

접종기관 및 대상자별로는 요양병원은 15만2810명(74.7%), 요양시설은 4만3556명(40.2%), 1차 대응요원은 1131명(1.5%),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은 2만4447명(7.9%)이다.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에서는 3909명(6.9%)이 백신 접종을 받았다. 예방 접종 현황은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등록 시점 등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잠정 통계치다.

예방접종 대상자에게는 사전예약, 예약 확정, 접종 일시·장소와 주의사항, 2차 접종 예약, 접종 후 3일째 이상반응 신고 등 문자 안내가 이뤄진

다. 최이슬기자



방호복 입고 거리로 나선 간호사들 '간호인력 기준 마련 촉구' 행동하는 간호사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소속 간호사 등이 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방호복을 입고 코로나19 병동 중증도별 간호인력기준 마련 및 간호인력 충원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대유행 차단 VS 행정편의...새 거리두기 개편안 딜레마

영업제한시간·사적모임 금지 '핵심 쟁점'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에 담긴 단계별 사적모임 규모 제한과 밤 9시 이후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을 놓고 코로나19 대유행을 막기 위한 '신의 한 수'로 평가하는 시각과 국민의 생활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행정편의적 조치라는 불만이 맞섰다.

5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주최로 열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청회의 쟁점은 방역관리 강화와 개인활동 및 시설 규제의 균형점을 어떻게 찾느냐였다.

새 개편안은 기존 5단계를 4단계(역세-지역유행-인원제한-권역유행·모임금지·대유행·외출금지)로 간소화한 게 핵심이다.

특히 사적모임 금지와 다중이용시설 영업 규제가 그간 세 번의 대유행 국면을 진정시키는 데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고 보고 이를 담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을 전체 하에 단계별

로 차등을 뒀다. 국민 피로도 증가와 서민경제 피해 누적 문제는 해소하면서도 이동, 여행, 외출 등에 엄격히 제한하는 외국과 같이 개인 활동은 더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감안한 조치다.

정부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에다 '소셜 버블'(social bubble) 개념을 도입했다.

소셜 버블은 코로나 청정국으로 꼽히는 뉴질랜드의 방역 전략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사람을 비숫방울로 싸듯 집단화해 그 안에서는 거리두기를 완화하고 바깥의 사람들에게는 엄격하게 거리를 두는 전략이다. 나라마다 다르지만 주로 10명 미만 단위로 묶어 이틀만 만날 수 있게 한다.

새 개편안에 따르면 4단계 중 2단계부터 인원을 달리해 사적모임이 금지되는데, 지역유행 수준인 2단계에 소

설 버블을 적용해 9인 이상 모임 수 없도록 했다.

3단계부터 현재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적용돼 4명까지만 모임 수 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선 뒤 지난해 12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처음 제안했고, 성탄절 이틀 전인 12월23일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 시작됐다.

대유행인 4단계일 땐 4명까지만 모임이, 오후 6시 이후엔 3인 이상 사적모임을 가질 수 없도록 했다. 사실상 경제활동이 끝난 뒤 후 가족 외 타인 간 접촉을 막겠다 얘기다.

중수본은 "버블에 포함된 구성원은 확대시키지 않으며 버블 외의 사람을 만날 때는 2m 거리두기와 마스크 반드시 착용 등이 필요하다"며 "4단계 조치에서 불필요한 외출 자제라는 강한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오유나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